

선교적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 : 한국 선교의 방향성과 과제

글 강대홍 선교사
/ KWMA 사무총장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의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계는 지난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교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건강한 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선교사를 무분별하게 파송하던 경향은 체계 없는 '막 선교'의 양상을 띠었고, 이는 전략 부재와 현지 교회와의 협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파송 자체에 집중했으며, 전문 선교단체보다는 개별 교회, 특히 담임목회자와 당회(선교부) 중심의 파송이 주를 이루었다.

세계 선교의 지형 변화와 한국 교회의 위치

지난 50년간 세계 선교의 흐름은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 비서구 교회는 3만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2021년에는 20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서구 교회의 파송 수는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기독교 인구의 분포 또한 1900년 당시 서구 82%, 비서구 18%에서 2020년에는 서구 33%, 비서구 67%로 역전되었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정 중심의 선교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

폴리센트릭 선교 시대와 한국 교회의 역할

폴리센트릭(Polycentric) 선교는 선교의 중심지가 다원화된 시대를 의미하며, 서구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 교회로의 역할 전환을 시사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비서구에 위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구에 속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서구와 비서구 간 선교적 가교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교에서는 현지 교회와의 동역, 외부 자원 의존도가 낮은 선교 전략이 중요시된다.

국내 선교 환경과 이주민 선교

한국에는 현재 27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 내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강조된다. 이는 새로운 국내 선교 영역으로서, 이주민을 향한 전략적 선교 접근이 요구된다.

1. New Target 2030과 한국 선교의 전략 과제

KWMA는 2030년까지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 1) 국제적으로는 폴리센트릭(다중심) 선교로의 이행
- 2) 국내 선교 이슈로는 이주민 선교의 강화
- 3) 다음 세대 선교 주체화
- 4) AI 및 디지털 기술의 선교적 활용

이상 4가지 주제들은 선교 타임즈 과월호를 통해 5번에 걸쳐 소개된 바 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선교 현장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3대 과제 KWMA는 선교 현장 중심의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과제를 강조한다.

- 1) 한국발 이단으로부터 선교지 교회의 보호
- 2) 통일 이후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사전 정책 수립
- 3) 파송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

이상 3가지를 이하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한국발 이단으로부터 선교지 교회의 보호

최근 한류(K-Wave)는 음식(K-Food),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음악(K-Pop)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계 이단 집단들 역시 이와 같은 문화적 파급력을 이용하여 해외 선교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선교 사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계 이단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구원파 등의 해외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인다.

1) 한국계 대표적인 이단의 확산 전략

- ①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공부를 매개로 삼아 접근하며, 종말론적 해석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함.
- ②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적 신앙 확산.
- ③ 구원파: 기복적 신앙과 배타적 구원론을 강조하며, 관심 있는 이들에게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제공.

2) 접근 방식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 ① 문화적 동화: K-문화에 대한 관심을 미끼로 선교지 청년층에게 접근.
- ② 성경공부 프로그램: 요한계시록 중심의 비밀 교육 방식으로 교리 주입.

③ 물량 공세: 인적 자원 및 재정 지원을 집중 투입하여, 미혹된 대상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사회적 고립 구조 형성.

3) KWMA의 대응: 선교지 이단 대책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설립 배경 및 목적

KWMA는 이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2025년 총회를 통해 선교지 이단 대책위원회를 공식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선교지에서 한국계 이단의 활동을 식별하고 차단하여,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② 선교지 이단 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진용식 목사 (예장 합동 소속,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관련 링크: <https://cafe.naver.com/jesus114modoo>

코디네이터: 양형주 목사 (대전도안교회 위임목사, 바이블백신센터 대표)

관련 링크: <https://bv.or.kr/main/main.html>

구성원: 한국 내 건강한 교단에서 이단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로 구성됨.

4) 실천 방안

KWM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국어로 번역된 이단 대응 자료들을 배포 예정.

선교사와 현지 교회를 위한 교육 세미나, 매뉴얼 제작 등 예방 중심의 전략 실행.

현지 지도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네트워크 형성.

국제 이단의 선교지 침투는 단지 개별 교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복음화의 진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단들은 정교한 전략과 풍부한 자원을 동원하여 선교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KWMA의 이단 대책위원회는 국내 교단 및 이단 상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교지에서 이단의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위원회의 활동이 선교지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 ①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의 신속한 배포
- ② 선교사 및 현지 지도자 대상 정기 교육 시스템 확립
- ③ 이단의 전략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2) 통일 이후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사전 정책 수립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북한 선교를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 이후의 교회 회복 전략으로 설정하고, 교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협력적이고 역사적으로 타당한 방식의 교회 복원을 위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역사성과 현재의 종교적 공백, 교단주의의

폐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KWMA는 지하교회 인정, 교단 협력, 섬김의 자세, 역사 기반 정책 수립 등 7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한 통일선교 전략을 수립하였다.

KWMA는 단기적인 북한 선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교회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 평양에는 5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했고, 북한 전역에는 약 3,000개에 달하는 교회가 활동 중이었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다 폐허가 되었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각 교단들마다 기도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교단들은 통일 이후 자기 교단의 교회를 북한 땅에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선교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산정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에서 4번째 분립된 역사적 교회로 주기철 목사가 사역했던 곳이며, 남한에는 이와 뿌리를 같이하는 교회가 서울에 2곳, 부산에 1곳 존재한다. 하지만 장대현 교회를 북한에 재건하려는 교단은 6곳에 이른다. 이러한 중복과 갈등의 가능성은 통일 후 선교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원칙〉

1) 지하교회의 선도적 역할 인정

지난 70여 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지하교회는, 통일 이후 회복될 북한교회의 중심 주체이자 선교의 핵심 주역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 기독교 신앙인을 중심으로 교회 회복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2) 한국교회의 섬김적 자세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에 대해 '외부자'로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주도적이기보다 돕고 섬기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북한교회 재건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3) 교단 간 협력과 통합 모델 마련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중심으로, 초창기 선교사들이 구축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참고하여, 교단 간 연합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4) 교단주의 지양과 역사 기반 정책 수립

북한 내 교회 회복과 선교지 분할은 개별 교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해방 이전의 교회사 및 교단 분포를 기반으로 '한국 기독교'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선교적 확장 기회 창출

북한교회 회복은 단지 과거의 복원 작업이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글로벌 선교를 향한 새로운 선교적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6)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세계선교 협력

남한의 교회는 재건된 북한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연합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7) 본질 중심의 교회 회복 지향

통일 이후의 한국교회는 교단 확장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순수한 복음의 전파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교회 건축에 과도한 재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본질과 원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3) 파송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

동반자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는 파송받은 외부인이며, 본질적으로 해당 국가(지역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며, 선교사는 일시적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아니다.) 격려하며, 선교 사역 역시 현지 교회의 요청과 필요에 기반해서 섬겨야 한다.

1)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이지만, 선교지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설령 순직(순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지 백성들이며, 선교사는 본질적으로 언젠가는 파송 교회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자이다.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해당 국가와 민족에게 주신 것이며, 이는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에 해당한다.

2) 선교사의 태생적 한계와 사명의 이양

현지 교회가 연약하여 자력으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사는 보완적 존재로 요청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현지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사는 반드시 그 사역을 이양하고 선교지를 떠나거나 다른 지역(UPG)으로 가야 한다. 이는 선교사의 존재론적 한계이며 동시에 선교의 지향점이다. 모든 사역은 현지 교회에 계승되어야 하며, 선교사는 그 이양을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3) 팬데믹 기간 중 드러난 선교 현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37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망하였으며, 전체 파송 받은 한국 선교사의 약 40%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태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 한국교회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의 주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교사는 물리적인 이유로 선교지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교회와 현지인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자기 나라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파송 교회는 선교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외부자 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4) 동반자 선교의 실천 원리

현장 선교는 반드시 현지 교회가 요청하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선교사는 현지 교단에 소속되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현지교회를 대신하여 섬기는 자로서 존재해야 한다. 같은 선교 전략으로 평신도는 파송을 받은 후에 현지의 지역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사역은 자연스럽게 전부 현지 교회의 사역이다. 즉, 사역의 주체는 언제나 현지인임을 인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5)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와 토착 교회(Indigenous Church)

선교사가 간여하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라 칭하며, 선교사 없이 현지인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는 '토착 교회(Indigenous Church)'라 부른다. 재정 지원 여부나 리더십의 구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선교사는 '산모'가 아닌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동반자 선교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교회의 자립성을 지향한다

동반자 선교란 선교사를 조력자(동역자)로 인정하는 선교 사역 모델이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현지 교회의 완전한 자립과 복음 전파의 확장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선교사는 '떠나는 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반자 선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 협력이며, 미래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가는 말

한국 선교는 이제 과거의 파송 교회 중심적 사역 모델로부터 탈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실행은 더 이상 선교사 개인의 단독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해당 지역 교회의 의견과 요청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선교(Partnership Mission)는 선교사가 현지 교회와 더불어 사역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동반자 사역이 가능해진다.

비록 현지 교회가 교육적 역량도 부족하고, 재정적 힘도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이들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사역을 섬기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 행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선교사(외부자)가 주도하는 선교에서 현지인(내부자)이 주체가 되는 선교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선교지 교회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에서 정착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한국 선교의 생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건강한 선교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현장은 건강한 선교 모습을 추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선교의 회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연적 진로라 하겠다. 